

여러분

창의도시 가나자와는 가나자와 창의도시추진 프로그램에 입각하여, 이번 연도부터 ‘크리에이티브 왈츠’라는 명칭을 내건 젊은공예가 해외연수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이것은 젊은 공예가들이 이문화와 교류함으로써 새로운 자극을 받고 국제적인 인맥이나 시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창조의 계승자를 육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번 연도는 가나자와 미술공예대학에서 가나자와시의 자매도시인 낸시시, 겐트시의 미술학교로 파견하는 유학생 4 명을 대상으로, 베를린시, 볼로냐시, 겐트시 등의 유럽의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파견합니다.

학생들은 방문처에서 각 도시의 창의도시 전략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에, 미술관, 갤러리 등을 견학하여 수준 높은 유럽의 예술문화를 접하고 예술가로서의 감성을 갈고 닦습니다.

방문시기는 베를린이 10월 4일~8일, 겐트가 12월 19일~24일, 볼로냐가 12월 20일~2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베를린시, 볼로냐시, 겐트시 여러분께서는 사업에 협력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창의도시 가나자와는 앞으로도 각종 전략을 추진함과 동시에, 이를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활동의 발전으로 이어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더없는 건승과 활약을 기원합니다.

일본 가나자와시 창의도시추진 담당